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조용호*

<차 례>

1. 문화, 한국문화, 한국문화교육
2. 문학을 활용한 정신문화 교육에서 생긴 문제들
3. 시조에서 찾아보는 정신문화의 뿌리들
4. 시조에 투영된 정신문화와 한국사회의 현상들
5. 마무리하며

<국문초록>

본고는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교육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하여 논한 글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의 개념과 한국문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문화의 범주를 물질문화, 생활문화, 정신문화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정신문화를 교육하는 것에 한정하여, 시조를 텍스트로 하여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조는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 놓은 문학 장르라서, 문학을 활용한 정신문화 교육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먼저 인간의 욕망을 상승적인 것과 하강적인 것, 그리고 내재적인 것과 외연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1)내재적·상승적인 것, 2)외연적·상승적인 것, 3)내재적·하강적인 것, 4)외연적·하강적인 것이라는 4개의 범주가 만들어진다. 그 범주들은 각각 정신문화의 특정 현상을 담고 있다. 나는 각각의 범주들 가운데 1)에서는 학문정진과 인격수양을, 2)에서는 입신양명과 출장입상을, 3)에서는 물아일치와 안빈낙도를, 4)에서는 성욕해소와 음주·놀이를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았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에 적절한 시조들을 사례로 들어 설명

*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하였다.

4개의 범주에서 제시한 정신문화의 요목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활이나 정신세계 속에 존재한다. 비록 근대 이전과 똑같은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나는 본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였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정신문화를 가르칠 때에는 과거에 죽은 문화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문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교사가 할 일이며, 한국을 알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진실하게 다가가는 자세이기도 하다.

주제어 한국문화교육, 정신문화, 욕망의 범주, 시조

1. 문화, 한국문화, 한국문화교육

‘문화’는 현재 식자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낱말 중 하나다. 그런 ‘문화’는 쉽게 다른 명사 뒤에 달라붙어 강력한 공격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는 요상한 성격의 말이기도 하다. 마치 개화기에 계몽 담론들과 신소설들에 ‘사회’라는 용어가 피상적이고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적 기표로 마구 유통되던 상황¹⁾과 유사하게, 근래에는 누구나 ‘문화’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단어에 마구 붙여 사용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²⁾ 하지만 기표가 쉽게 유통되는 것과 반대로, 그 기

1) 최현주, 『신소설에 나타난 신생 개념으로서의 ‘사회’와 가족주의의 견고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집(9권 4호), 2005, 129~155쪽.

2) 그러나 개화기와 현재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 원인까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개화기는 일본에서 영어의 Society를 번역한 신생어 ‘사회’를 받아들여 쓰다 보니 언중들이 그 기의도 잘 모르면서 단지 기표로만 사용했던 것이고, 현재는 익숙하게 아는 말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마구 붙여 사용하다가 오히려 기의를 흐려놓게 된 것이다.

의는 점점 흐려지거나 확장 일변도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성싶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문화’를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런 정의에서라면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유무형의 모든 산물을 포함하는 그 무엇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개념을 정의한 것이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됐다. 그러나 그런 허술한 정의가 단지 국어학자나 문화학자의 무책임 혹은 실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다. 이것은 ‘문화’가 오늘날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편재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위력 있게 쓰이는 말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문화’는 어떤 명사와 결합해서 쓰이느냐에 따라 그 함의와 지시 대상의 편차가 매우 크다. 예컨대 전통문화·유교문화·농경문화는 속에 매우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말로 느껴지는 반면, 응원문화·외식문화·주거문화 따위의 말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고대문화·신라문화·20세기문화 등에서는 역사적·시대적 특징이 주된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남도문화·해양문화·섬문화 등에서는 지리적·공간적 특징이 더 문제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 선비문화·기녀문화·청년문화란 말에서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의식이 주로 거론될 듯하고, 자동차문화·야구문화·노래방문화란 말에서는 향유자들의 행태가 주로 거론될 듯하다. 그리고 이런 식의 열거와 비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가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의미요소들을 포함하는 모호한 말이라서 생겨난 결과이거나, ‘문화’ 자체가

에초부터 기의가 불분명한 채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혼란상일 것이다.

개념적 모호성과 정체성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이 나름대로 ‘문화’에 대해서 정의하고,³⁾ 범주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왔다.⁴⁾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고 아직도 지속된다는 것은 기왕에 정의된 그 개념이 누구나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아직도 문화라는 말이 강한 전파력과 공격성을 지니고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라면, 귀납법에 기초한 개념 정의는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오히려 ‘문화’가 붙은 말의 용례나 속성을 연역적으로 파악하여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문화’를 이해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나도 ‘문화’의 내용을 범주화한 뒤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범주화를 위한 술어는 눈에 익어 쉽게 기억될 만한 것이 좋고, 분류 기준은 단순·명료해야 하며, 지시 대상은 분명해야 좋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범주는 셋인데,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와 생활문화가 그것이다. 물질문화는 구체적인 형상이나 색채를 지니고 있어 오감으로 파악하거나 느

3) 예컨대 배재원은 문화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획득된 지식, 즉 한 집단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 집단에 의해 습득 또는 학습된 행위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의 『표준국어대사전』의 그것보다는 훨씬 간략하고 깔끔해졌지만, 여전히 그 말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적 실체는 국어사전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 배재원,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1, 17쪽.

4) 한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그 성과 또는 방법론적 모형의 개발을 논문으로 제출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문화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수용할 만한 것은 권오경이 토마린(Barry Tomalin)과 스템플레스키(Susan Stempleski)를 따라 성취문화/행동문화로 나누고 또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관념문화까지 셋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의 방향』,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론총』 45호, 2006, 398~400쪽. 기타 문화에 대한 여러 개념이나 분류에 관한 논의는 배재원의 박사학위 논문 전체에 걸쳐 두루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배재원, 앞의 논문.

낄 수 있는 것이고, 정신문화는 무형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언어·문학과 예술작품, 학술적 저작물 등에 내재된 일체의 원리와 관념과 사유의 체계이며, 생활문화는 인간이 나날의 삶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의·식·주 및 법률적 제도와 관습 등 생존에 필요한 일체의 조건들이다. 그 범주 아래에 속한 요소들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요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존재하기도 한다.⁵⁾

세 범주 가운데 생활문화는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며 누구나 쉽게 습득할 수 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라면, 그들이 한국에서 숙식하며 공부하고 누군가를 만나 매일 보고 듣는 대부분의 것들이 생활문화의 내용에 해당한다. 물질문화는 박물관·사찰·고궁·민속촌 등을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한국인과 제법 심도 있는 화제로 대화하며 소통하고 사는 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은 습득할 수 있다. 정신문화는 인간의 언어·문학·예술·학문적 저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기에, 외국인이 짧은 기간에 체득하기는 쉽지 않다. 언어를 배우거나 문학과 예술을 감상하면서 어느 정도 자국 문화와의 차이를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과연 한국의 정신문화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당장은 확인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다보면 왜 외국인이 한국문화를 배워야 하는지, 역으로 우리는 왜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외국인은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까지 속속들이 알지 못해도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 데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어에 능숙해지기

5) 기획 주제인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는 문학 속에 내재된 정신문화를 고찰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문학 텍스트가 존재하고 그것을 읽는 행위는 물질문화 및 생활문화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작품의 창작과 독서 그리고 그 형태와 관련된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까지 한국문화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하는 욕구도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 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한국인과 잘 교류하고 소통하기를, 그리고 가능한 한 한국인 특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감정까지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망이 발동해서, 그들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쳐야 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한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간 뒤 친한파가 되어 한국에 대해 더 우호적인 견해를 적극 피력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그들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는 것이 낫겠다는 이기적 선의가 더해졌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배워야 하고, 한국인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어야 할 한국문화란 무엇인가? 물론 이런 질문은 한국문화는 다른 나라의 문화들과 변별되는 무엇인가가 있으며, 그것이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대표할 만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배재원은 그의 박사논문에서 ‘한 나라의 문화란 그 공동체내의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으로 다른 공동체와 구별시켜주는 어떤 공동체의 특징이다. 이 속성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감에 따라 가속적으로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⁶⁾ 이것을 정리하면 한국문화란 결국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한국인들만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라고 하겠는데, 문제는 그 한국인들이 지역·세대·성별·직업·재산 등의 차이에 따라 너무나 다른 가치관과 행태를 보인다는 데 있다. 정신문화에 한정하여 보면, 현재의 한국인이 보여주는 사고방식과 행태를 통해서는 과거로부터 유래한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절대적인 가치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이 공유했던 가치관이나 관념 혹은 사유 체계

6) 배재원, 앞의 논문, 17쪽.

의 뿌리를 찾으려면 근대 이전의 문화사적 자취들을 살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내재된 관념과 사유 체계가 현재까지 유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신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선뜻 고금을 두루 관통하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것이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마침내는 '과거에 생성된 모든 관념이 한국의 정신문화다'라는 결과로 비약하고 만다. 그러나 한 개인의 지극히 유별난 성향을 한국인의 정신문화라고 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다수의 한국인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어떤 생각이나 관념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목록에 들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역사가 오래다 보니 사람들이 공유하는 관념도 많이 바뀌어왔을 테고, 각 왕조에서 국시로 삼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달라졌으니 그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유 체계도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진 한국인의 가치 관념이나 사유 체계는 도대체 어느 때의 것인가? 하지만 이런 답답함을 풀어줄 묘담은 끝내 찾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 잠정적으로 교사가 익히 들어왔고 친숙하게 느껴왔던, 그리고 서구인들과는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사유 체계와 관념들을 한국의 전통적 정신문화로 보자는 선에서 타협하도록 하자.⁷⁾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의 존재의미가 특히 강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⁸⁾ 그들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한국문화교육의 성과와 품질이 결정될

7) 그러나 무조건 서구와 다른 어떤 독특한 것만을 한국문화라고 해서는 안 된다. 문화란 특수성과 보편성이 공존하는 것이므로,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인 가치관을 한국인들도 가졌다면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에 관심을 가진 것이니만큼, 한국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외국과는 다른 독특한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문화교육은 처음부터 커다란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흠결이 있다.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교사들 대다수가 국어교육이나 국어국문학 또는 한국어교육을 전공했는데, 그들은 학교를 벗어나 한국문화를 두루 체득할 기회를 그다지 많이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가르치는 한국 문화의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매우 편협하거나 대단히 지엽적인 지식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인의 정신문화에 대한 정체성도 뚜렷하게 제시하기 어려운데, 지식과 경험마저 일천한 교사들이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한국문화교육이 첩첩산중에 던져진 것과 같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려면 한국문화교육 담당자들이 한국문화의 특질에 대해 설명한 글들을 끊임없이 탐독하고 자기 갱신을 통해 부족함을 메꿀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독려하는 길밖에 없다.

창의성과 융통성이 부족한 교사일수록 기성의 교재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재 한국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상호간에 변별성도 별로 없는 교재들이 과도하게 출판되고 있어서 문제다.⁹⁾ 반면에 시중에서 한국 문화 교육용으로 쓰기에 알맞은 교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된 것은 교육방법론이 빈곤해서가 아니라, 한국문화를 교육할 때 과연 무엇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어교육 전공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집단이

8) 최정순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문제로 교재·교원·교수법·연구의 문제를 지적하였다(최정순,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까지 문화 간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제안하며』, 한국고전연구학회, 『한국고전연구』 27집, 2013, 10~12쪽). 이는 한국어교육에서만뿐만 아니라 한국문화교육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문제점이다. 하지만 나는 교육의 성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훌륭한 교사는 교재와 교수법이 미흡하더라도 얼마든지 올바르게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9) 최정순, 앞의 논문, 10~11쪽.

한국어를 가르침으로써 동시에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믿어온 태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올바르게 의사소통하는 것만으로는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없다. 이는 한국 학생이 국내에서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워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어도 영어권의 문화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은 한국어교육 너머에 존재한다.¹⁰⁾ 그리고 그것은 닫힌 교재와 정형화된 교수법이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교사에 의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2. 문학을 활용한 정신문화 교육에서 생긴 문제들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한국인의 정신문화까지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물론 정신문화의 어떤 측면은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문화는 인간의 언어 속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 그리고 학술적인 글 속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편재한다. 문학과 예술은 주제 혹은 의미를 직접 선언하지 않는다. 특히 문학은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하여 감추고 우회하고 뒤틀고 심지어는 역설이라는 방식을 통해서까지 의미를 구현한다. 문학이 배태한 정신문화는 단지 거기에서 사용된 언어의 사전적인 뜻을 모두 안다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데다가 다

10) 그런데 문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수업의 절대시수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교육 시간은 언어 교육에 할당되고 있으며 문화는 거의 맛보기 수준에서 덧붙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외국인들은 단지 한국인과 대화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언어는 수단이고 문화가 목이라는 말이다. 문화교육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른 예술작품 및 학술 저작들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어를 가르침으로써 한국인의 정신문화까지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단순하고 순진한 것인지 자명해진다.¹¹⁾

한국문학 전공자들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현실에서, 그들이 정신문화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문학작품을 정신문화 교육에 활용하려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실제로 그런 과정을 보고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구안한 논문들을 통해서 활동의 성과와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문들에서 시도된 방식이 한국문화를 교육하는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과정을 펼쳐 보인 논문들을 좀 살펴보니, 연구자들(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교사까지 포함하여)은 대략 작품에 사용된 어려운 어휘의 뜻을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체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고, 그것이 한국문화의 특정 부분을 담고 있다거나 혹은 어떤 측면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순서를 밟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선행하는 논문의 서술 방식을 그렇게들 답습하는지, 굳이 어휘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선행연구를 따르면서 생긴 관성 때문인지 궁금해졌다.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의 특수하고도 심층적인 면까지 자세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매우 궁금하다. 나는 한국문학을 깊이 연구하는 유학생이 아닌 한국어연수생의 신분이라면, 한국의 국문과 학생도 잘 모르는 세밀한 내용까지 깊이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¹²⁾

11) 문학작품을 도구로 사용하여 한국어를 교육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문학작품을 언어교육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어휘의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작품에서 쓰인 특수한 언어사용법을 설명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설명을 해버리거나 혹은 자신이 없어 머뭇거리다보면 자칫 문화를 교육하는 데까지 더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학 또는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공유한 정신문화의 정수를 가르치기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그들에게 한국어교육에 만족하지 말고 한국문화까지 가르치라고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은 이런 요구에 따라 나름대로 한국문화를 교육하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스스로 깨닫거나 필요를 느끼고 방법을 개척하면서 능동적으로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적극적인 교사도 많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교사들이 한국문화를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의 하나가 문학작품이다. 그들의 시도는 논문으로 소개되기도 하는데, 그 논문들을 검토하면 몇 가지 중요한 현상이자 문제로 지적할 만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텍스트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교사와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는 텍스트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시 몇 개의 하위 문제로 나뉜다. 우선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장르와 작품의 편중화이다.¹²⁾

12) 예컨대 이선이는 박목월의 『나그네』를 가르치면서 제3행 ‘길은 외줄기 / 남도 삼백 리’에서 ‘외줄기’는 ‘나그네’라는 시적 표상이 자연 속에 조용히 스며들면서 자연과 조응하고 조화하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이라는 생태적인 인식의 표출’이라고 하였다. 또 ‘삼백 리’에서 ‘삼은 우리 문화 속에서 음과 양이 서로 조화되는 이상적인 상태로써 완전한 존재를 의미한다는 점, 즉 天地의 三才, 삼천리강산 등을 통해 삼의 의미가 완전성과 전체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물론, 이 시에서 삼백 리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아득함이 이상향으로 이어지는 거리를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한국적 유토피아의식이 완전성과 전체성을 표상하는 3으로 구체화되었음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이 정도의 설명이라면 대학원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쉽게 납득시키기 어려운 수준이다. 도대체 이 수업에서 과연 ‘외국인’은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내게는 이 논문이 연구자 자신의 문학적 분석 능력과 시의 이해도를 자랑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선이, 『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제14권 1호, 2003, 168쪽.

13) 사실 이것은 제출된 논문을 보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교사들이 자신의 체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법론과 텍스트를 소개하고 공유하려는 의도로 제출한 것이 논문이라면, 어느 정도

기술문학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고전문학을 텍스트로 하는 경우보다 현대문학을 텍스트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현대문학 가운데서도 소설보다는 시가 많고, 특정한 작가나 시인의 작품에 한정되는 경향도 보인다. 황인교가 2005년도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고전문학에 비하여 현대문학이 텍스트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지만,¹⁴⁾ 그 이후에 최정순·윤지원이 집계한 결과를 통해서도 2000년 이후부터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¹⁵⁾ 물론 논문으로 발표된 것만 한정해서 본 것이기에, 현장에서의 실상도 그런지는 자신할 수 없다.

현대문학은 그 형성 단계에서 서구적인 영향이 적지 않았고 또 고전문학에 비하여 작가의 개성이 훨씬 강조되기 때문에, 작품에 투영된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사유 체계는 고전문학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대문학을 텍스트로 하여 한국문화를 교육할 때는 작품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현대시는 개인의 정서 표현이 우세한 장르이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전통적 가치관에 근원을 둔 것이라 하더라도

는 실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 14) 황인교, 『문학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291~294쪽 참조. 한편 강현화는 1987~2009년까지의 논문을 집계한 결과, 문화교육을 연구한 논문 176편 가운데 문학을 활용한 것이 17편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르에 속한 작품들이 활용되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기에 본문에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 강현화,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최신 동향 및 전망』, 『국어국문학』 155집, 국어국문학회, 2010, 59~61쪽.
- 15) 최정순·윤지원, 『한국어교육 연구동향 분석』, 『인문연구』 63집,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80~81쪽 및 최정순 교수가 개인적으로 제공해 준 논문 목록 참조. 최 교수의 목록을 보면 문학작품은 대부분 한국어교육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화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문학작품이 사용된 경우는 현대시와 고전소설의 비중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최정순 교수는 자신이 수집하고 정리한 모든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의 목록 전체를 아무 조건 없이 내게 제공해 주었다. 덕분에 나는 연구 경향을 대략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서 그의 후의에 감사를 표한다.)

도, 거기에 투영된 개인적 특수한 정서를 한국인이 공유한 정신문화와 직결시키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시 한 편을 텍스트로 하여 가르칠 수 있는 한국문화의 요소는 아주 부분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한 한 여러 시편을 한꺼번에 텍스트로 삼아 설명하는 방법으로 일반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설이나 수필 등 다른 장르에 속한 작품들을 텍스트로 삼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으로 지적할 문제는 고전문학을 텍스트로 하는 경우에도 전래동화나 근래에 활자화된 구술문학 자료가 훨씬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전래동화라는 것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하여 그 속에 투영된 가치 관념을 쉽게 추출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자국의 이야기들과 비교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의 구미를 당길 만하다. 그러나 ‘전래동화’라는 말은 그 유래는 물론 용어가 지시하는 대상조차 분명치 않은 빈껍데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국인에 대한 한국문화교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에서 전래동화에 들어 있는 작품 목록을 검색하면 대개 고전소설이나 민담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고전소설은 원전이나 우리가 선본이라고 말하는 텍스트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거기에 투영된 가치관을 일컬어 그 소설이 지어지고 활발히 유통되던 시기에 한국인들이 공유했던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설사 민중이 소설의 특정 사건을 기억하고 민담으로 전승시킨 결과로부터 한국인의 정신세계의 일단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지도 모르나, 그것은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너무나 단순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교육적인 효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악의 단순 2분법적 대립과 선에 의한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되는 정형성이 뚜렷한 이런 실체 없는 텍스트의 활용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다.

나는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가르치는 데는 고전소설보다 고전시가, 특히 시조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내용도 짧아서 간단하게 어휘만 손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현대어 텍스트로 고칠 수 있고, 리듬 때문에 소리 내어 읽는 동안 흥미가 배가될 수 있으며, 또 그 속에 다양한 정신문화의 편린들을 담고 있어서 질문과 대답이 풍부하게 오가는 수업을 만들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에 고전시가를 사용한 사례가 보고된 것이 극히 드물다. 시조처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법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과정을 보여준 논문은 단 한 편에 불과하다.¹⁶⁾ 현대시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시조가 활용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도 궁금한 일이다.

고전문학 작품은 어려운 한자어와 고어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중급반 이하의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현대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선행하거나, 적어도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적절한 텍스트를 써야 한다.¹⁷⁾

16) 국회도서관에서 고전시가 장르에 한국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을 번갈아 키워드로 놓고 검색하면 시조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편 검색되는데, 그 가운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교육을 하면서 시조를 사용한 논문은 단 1편에 불과하다. 황우철의 논문이 바로 그것인데, 그는 한국어능력 중급 이상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이쿠와 시조를 비교해가면서 시조교육과 함께 그거에 투영된 한국인의 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시조를 열거하고 하이쿠와 비교를 함으로써 외국인이 기억해야 할 한국문화의 항목이 너무나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황우철, 『시조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중급 이상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2009. 한편 최정순이 정리한 목록에도 고전시가를 활용하여 한국문화를 교육한 사례는 「농가월령가」를 이용한 것 한 편만이 보일 뿐이다. 혹여 집계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보충하더라도, 고전시가를 활용하여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논문이 의미 있는 수치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7) 이와 관련해서 도서출판 학이시습에서 100권 시리즈로 나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는 추천할 만한 교재다. 초급 50권, 중급 30권, 고급 20권의 이 시리즈는 100쪽 내외의 핸드북으로 출판되어 휴대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독학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루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대하소설이나 주제와 의미가 난해하고 연구자들에게서조차 논란이 많은 작품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반면에 고급반에서는 그런 작품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정신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¹⁸⁾

두 번째는 교사와 연관된 문제이다. 여기에서도 다시 몇 개의 하위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적해야 것은 교사들이 쓴 논문이다. 논자들은 문학작품을 텍스트로 사용해서 문화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보다는, 문학을 통하여 문화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당위성을 특히 강조하는 그런 논문들에서는 정작 가르쳐야 할 문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 보니, 그들이 가르친 것이 정말로 외국인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한국문화의 정수인지, 해당 작품에 진정 한국인이 공유하는 가치나 이념이나 심성이 오롯이 투영되어 있는지,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에 맞게 내용의 깊이는 적절하게 조절하였는지 등의 주요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문화에서 아주 부분적이거나 지역적인 항목, 그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만을 반복적으로

어려운 단어는 줄을 긋고 일일이 뜻풀이를 해주어 독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였다. 또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설화와 고전문학에 배분되어 있어서 고전문학을 이용해서 한국문화교육을 하기에 적절하다. 더구나 원전의 내용과 메시지를 그다지 훼손하지 않으면서 읽기 쉬운 현대어로 바꾸었기에 한국문화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점이 있다.

- 18) 실제로 ‘홍길동전’, 『홍부전』, 『춘향전』 등이 그런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고급반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한국고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려는 포부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일정 부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다른 분야를 전공하려는 학생들도 대학에 다니면서는 어려운 학문적 개념을 소화해야 하므로 어려운 어휘를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원전에 가까운 고전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답습되는 것도 일정 부분은 이런 사실에서 기원한다.

다음으로 거론할 문제는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한국문화를 가르친 과정을 기술한 학위논문 가운데는 교육대학원 졸업논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학위논문은 일단 젊은 연구자들이 속속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뛰어들어 열정적으로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것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면 교사들이 연구와 교육을 병행한 것이기에 창의적이고 참신한 수업이 되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보면 교사들의 문제의식과 수업 방식이 논문을 작성하던 바로 그 시점의 수준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생긴다. 특히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대개 더 이상 이론적 토대를 다지는 공부에는 시간을 투자하려 하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일부 교육대학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하는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다른 글들을 표절하거나 혹은 특정한 논문을 모델로 삼고 작품만을 바꾸어 유사하게 서술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존의 틀을 답습만 하는 교사의 수업에서는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끝으로는 상당수의 교사들이 한국문화교육을 한국어교육에 부수적인 것처럼 여긴다는 점이다. 그들은 작품에 사용된 어휘의 뜻풀이로부터 시작하여 문화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는 단계까지 진행한다. 그러나 어휘를 모두 알아야만 문학의 의미와 그 배경이 된 문화적인 맥락까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문학작품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울 만한 수준에 도달한 정도의 외국인이라면, 그는 이미 중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에게는 어휘 정도는 미리 찾아오게 한 뒤 바로 작품을 읽으면서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몇몇 어휘의 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어휘들의 나열과 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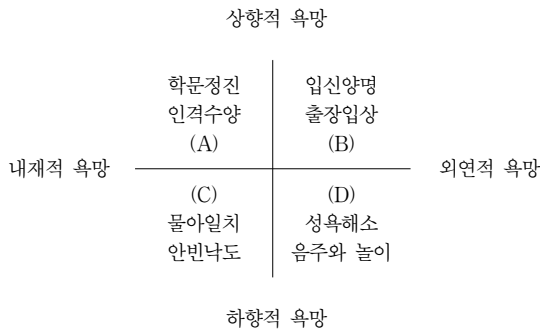
통하여 작품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으니, 학생들을 믿고 그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항상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하는 틀을 답습하는 것은 문화를 교육하는 방법상에 잔존하는 관성과 고정관념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한국문화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 빚어낸 문제이기도 하다.

3. 시조에서 찾아보는 정신문화의 뿌리들

여기에서는 시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신문화의 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시조는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6백 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고전문학 장르이며, 수많은 작품들이 담지하고 있는 정신세계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국문학사상 가장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향유된 것이기에,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풍부하게 배태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학이라고 할 만하다. 또한 길이가 짧고 리듬감 있는 정형적인 노래라서 소리 내어 읽거나 기억하기 쉽고, 교사가 미리 사전을 찾는 수고를 약간만 보탠다면 외국인도 읽기 쉬운 현대어로 바꾸어줄 수 있다. 시조는 외국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만한 최적의 조건을 가진 장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시조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다.¹⁹⁾

19) 여기에서 내가 이야기할 내용들이 시조를 바탕으로 삼아 가르칠 수 있는 정신문화의 항목 전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시조에는 다양한 정신문화가 투영되어 있어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내 나름대로 시조를 범주화하고 결국에는 정신문화와 관련시키는 작업을 할 텐데, 이 틀 또한 시조 전체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만능열쇠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틀을 만드는 방식 자체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용한 시조 대신에 다른 작품을 넣을 수도 있고, 항목을 바꿔 다른 방식으로 구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흔히 문학은 인간이 ‘있는 것(존재, Sein)’과 ‘있어야 할 것(당위, Sollen)’ 사이에서 갈등하기에 생겨난다고 한다. ‘있어야 할 것’이란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꼭 갖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욕망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기에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현실을 감내하지는 생각과 현실에 만족하고 즐기며 살자는 생각이 충돌하게 마련이다. 편의상 그것을 각각 상향적 욕망과 하향적 욕망으로 부르기로 한다. 전자는 현재보다 더 나은 차원에서의 발전과 성취를 추구하는 욕망이고, 후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최고의 만족과 희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다. 그런데 욕망 중에는 마음속에 계속 저장되는 것도 있고, 밖으로 발산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때 전자를 내재적 욕망, 후자를 외연적 욕망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러면 상하운동과 내외운동을 하는 두 개의 축선이 만들어진다. 그것을 교차시키면 4개의 면으로 분할되는데, 그 4개의 면은 모두 그 안에 있는 하위 욕망들을 포괄하는 상위의 욕망 범주가 된다. 각 면에 써넣은 말은 해당 범주에서 거론할 수 있는 욕망의 주요 내용들이다.



(A)는 그 자체로 학문과 인격을 닦아서 몸에 온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범주다. 사람이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가꾸면서 공부하는 것은 장차 기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잘 쓰기 위해서라지만,²⁰⁾ 그런 목적과 무관하게 심혈을 기울여 학문을 닦고 인격을 수양하는 사람도 있다.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모두는 현재보다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과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에 상향적 욕망이라 부를 수 있다. 또 순전히 가족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수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내재적 욕망에 속한다. 세상에 나아가서 쓰기 위해 학문을 연마하더라도,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기 전에는 아직 내재적 욕망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목적과는 상관없이, 공부해서 얻은 결과가 오로지 안에서만 온축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적절한 비유가 될 듯하다. 다음은 이 범주에 해당하는 시조들이다.²¹⁾

가)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봐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예고 어쩔꼬

나) 남의 말 이르지 말고 내 몸을 살펴보아
허물을 고치고 어진 데 읊아스라.
내 몸에 흠 있다면 남의 일을 이르랴.

다) 남아의 입신양명 현부모도 크다마는

20) 韓愈, 『原道』, ‘古之所謂正心而誠意者 將以有爲也(옛날에 이른바 마음을 바로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던 것은 장차 쓰려고 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글자는 인격과 학문을 닦으면서 장차 쓰일 것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21) 이 글에 인용한 시조와 작가에 대한 정보는 모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김흥규 외, 『고시조대전』(2012)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士君子 출처간에 때 時자가 關重하다.
아마도 주경코 야독하여 俟河之淸 하리로다.

가)는 이황(李滉: 1501~1570)의 시조이다. 여기에서 古人은 내가 우리라고 따를 옛 성현을 지칭한다. 그들과 나는 생존 시대가 다르므로 서로 만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성현이 가던 길은 내가 그들의 글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먼저 갔던 바른 길을 나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학문과 인격을 닦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시조이다. 그는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내게도 그런 허물이 있는지 살피라고 하였다. ‘言顧行 行顧言’이라고 한 『중용』의 금언²²⁾에 정확하게 합치되는 이런 태도는 옛사람들이 늘 금과옥조로 삼던 처세관이다. 다)는 김유기(金裕器: 17세기 말~18세기 사람. 생몰년 미상)의 시조이다. 조선조를 살았던 양반사대부들의 가장 큰 욕망이자 최대의 효도는 바로 立身揚名해서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세상에 나서면 오히려 다칠 염려가 있다. 때 시자가 중요하다고 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세상이 어지러우면 주경야독 하면서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개인의 욕망이 내재적 차원과 외연적 차원에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 시조를 통하여 조선조 선비들이 출처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학문과 인격을 닦는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나아가서 입신양명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B)는 세상에 나아가서 공명을 이루고 역사에 자취를 남기는 일을 포함하는 범주다. (A)에서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쌓던 사람들은 항상 (B)에

22) 『中庸』 제13장. ‘言顧行 行顧言 君子胡不慥慥言.’ 번역은 ‘말을 할 때는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할 때는 말을 돌아본다면, 군자가 어디서든지 독실하지 않겠는가?’

서 공명을 이루고 그 거룩한 이름이 역사에 새겨지기를 희망하였다. 그래서 선비들은 주경야독하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세상으로 나가려 하였으며, 일단 세상에 나서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을 교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자면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 되어야 했다. 글공부했다고 해서 文弱에 빠지지 않고 무예를 닦았다고 해서 强暴한 데로 치닫지 않는, 문무를 겸전한 인간상은 사대부들이 도달하고자 한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이었다. 특히 장수가 되어서는 전장에 나아가 탁월한 전공을 쌓고, 돌아와 재상이 되어서는 임금을 잘 보필하는 것이 그런 인간상의 전형이었다. ‘立身揚名’, 더 나아가 ‘出將入相’은 (B)에서 구체화된 욕망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관용어였다. 이 범주에 속하는 시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라) 적토마 살지게 먹여 두만강에 씻겨 타고
용천검 드는 칼을 선뜻 빼어 둘러메고
장부의 입신양명을 시험할까 하노라.

마) 활 지어 팔에 걸고 글 배워 품에 품고
평원광야의 백만 군 거느리고
언제면 남만복적을 칠종칠금 하리오

사) 대장부 되어나서 공맹안증 못할세면
차라리 툭 다 떨치고 태공병법 외워내어 말 만한 대장인을 허리 아래
비껴 차고 만마천병을 지휘간에 넣어두고 坐作進退 하올 적에
아마도 대장부의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남이(南怡: 1441~1468)의 시조다. 일찍이 ‘男兒二十未平國 後

世誰稱大丈夫'라고 호기 있게 외쳤던 사내답게, 남이는 이 시조에서 장쾌한 기상을 드러냈다. 그러나 28세에 병조판서에 올랐다가 유자광의 모함으로 요절하고 만 그는, 이 시조를 읊을 시점에는 아직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진리를 체득할 연배에는 이르지 못했던 듯하다. 그에게서 입신양명이란 것은 오로지 전장에 나아가 공을 세우는 일일 뿐이었다. 마)는 신여철(申汝哲: 1634~1701)의 시조이다. 신여철은 성균관에 입학했다가 효종의 북벌 계획에 호응하여 다시 무예를 배우고 장수의 길로 나선 사람이었다. 그런 만큼 초장의 표현은 자신이 문무를 겸비한 인물임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말로만 무성하던 효종의 북벌계획은 종내 실현되지 못하였고, 인생향로를 바꿔 무인의 길로 들어선 의미는 퇴색해버렸다. 그 때문인지 종장에는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희망이 사라져가는 데 대한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다. 사)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다. 화자의 생각에 사내로 태어나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유학을 배워 출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라는 조건 하에 병법을 배워 장수가 되어 전장을 누비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종장에서서는 오히려 그것만이 대장부의 일이라고 태도를 바꾸어 무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무인으로 입신양명하려면 나라가 혼란하거나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기에, 무인들은 늘 양가감정을 가졌을 테고 문인들에게는 자격지심을 가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종장의 표현에서는 그런 느낌이 묻어난다.

(C)는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소한 즐거움에 만족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범주다. 이 범주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들은 특별히 뭔가를 터 나게 욕망하지 않는다. 아예 욕망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른바 물아일치니 안빈낙도니 하는 말들이 함의하는 경지에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속한 시조를 읊은 사람들이 모두 처음부

터 욕망을 지워버리고 자연에 귀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개 세상에 나아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입신양명을 추구하고, 경쟁과 갈등 속에서 심신을 황폐화시킨 인물들에 가깝다. 그러나 일단 이 범주로 들어 오면 세상에서 이룬 부귀공명이나 입신양명이 전혀 안중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는 돌아와 초야에 묻혔으니, 자연에 완벽하게 동화된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의식을 보여주는 시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아)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자)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 절로 수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 차) 가을에 곡식 보니 좋음도 좋을시고
내 힘에 이룬 것이 먹어도 맛이로다.
이 밖의 천사만종을 부워 무삼 하리오.

아)는 김장생(金長生:1548~1631) 또는 송순(宋純: 1493~1582)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경영’이란 어휘에 익숙한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10년을 경영해서 겨우 세 칸짜리 초가집을 지었다는 사실은 허무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화자는 진지하게 자신과 달과 청풍이 집을 균분하고 있으니, 청산은 들여놓을 데가 없어 그냥 둘러 두고 보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달 밝은 밤에 시인이 방문을 모두 열고 혼자 앉아서 산을 둘러보는 장면을

언어로 그린 그림이다. 물이일치의 경지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자)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시조다. 짧은 시조 한 수에 '절로'라는 부사가 무려 아홉 차례나 등장한다. 일반적인 대화에서라면 짜증이 날 만큼 동일한 어휘가 반복되고 문장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있지만, 시조에서는 다른 어휘들과 완벽할 정도로 잘 어울린다. 일체의 인위가 가해지지 않은 표현인 '절로' 속에서 자연 질서의 자연스런 변화는 화자의 성장과 노화마저도 자연의 일부로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차)는 이휘일(李徽逸: 1619~1672)의 시조다. 앞의 두 시조가 사람의 혼적조차 지워버린 듯한 완벽한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 시조는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농부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시조의 화자는 사람이 스스로 곡식을 가꿔서 먹고사는 무욕의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값어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D)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저속한 욕망을 포함하는 범주다. 이 범주에 속한 욕망들은 앞에서 본 다른 욕망들에 비하여 본능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다. 여기에서는 남의 이목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본능에 충실하게 따르는 행위들이 모두 용인된다. 누구에게나 가장 퇴폐적으로 욕망을 표출하고 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허용되기에, 외설스런 말과 충동적인 행동이 난무하기도 하며,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거나한 음주와 낭자한 향락의 무대가 펼쳐지기도 한다. 평소에 사람들의 의식과 행위를 제약하던 일체의 체념과 염치를 벗어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즐기면 되' 것이다. 신분과 지위와 도덕과 학식이 중요하지도 않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경쟁적으로 드러내고, 떠벌이고, 부풀리며 좌증을 압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범주에서는 비록 용모가 추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신분이 낮더라도,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욕망의 충족을 향해 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 범주에서 전형적인 시조들이다.

카) 얼굴 검고 키 크고 구레나룻 난 놈 하물도 대단하다.

밤마다 품에 들어 작고 좁은 구멍에 길고 큰 것을 억지로 박아두고
슬근슬근 까박일 제 태산으로 덮누르는 듯 잔방귀 흘러나고 밀살이
터지는 듯 땀 나 붙닐 적에 애정은커니와 젓 먹던 힘이 다 쓰이노매
라.

아무나 이 님 데려가 견딜 만하거든 백년을 회포하고 영영 아니 온들
어느 개딸년이 시앗 새움 하리오.

타) 오늘도 좋은 날이요 이곳도 좋은 곳이

좋은 날 좋은 곳에 좋은 사람 만나 있어
좋은 술 좋은 안주에 좋은 늬이 좋아라.

파) 노세 노세 매양 長息 노세 낮도 놀고 밤도 노세

벽상에 그린 닭이 회회쳐 울도록 노세 노세
인생이 아침이슬이니 아니 놀고 어이리

카)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다. 이 시조에서는 정력이 강한 남성과 사는 괴로움이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노골적으로 표현된다. 남성은 우락부락하게 생긴 용모에다가 성기가 매우 커서, 매번 성교를 할 때마다 화자에게 태산에 깔린 듯한 괴로움을 맛보게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화자는 남성이 ‘작고 좁은 구멍에 길고 큰 것을 억지로 박아두고 슬근슬근 까박’이는 동안 온몸으로 버티느라 애정을 느끼기는커녕 젓 먹던 힘까지 다 쓰고 있다. 여북하면 이 남자를 데려가 견딜 만하거든 백 년 동안 살면서 오지 않는다 해도 시앗을 들였다고 시샘하지 않겠다고 했겠는가? ‘개딸년’은 화자의 그런 감정상태가 오롯이 응축되어 있는 말이다. 타)도 작자 미상의 시조다. 초장에서 사용된 조사 ‘도’를 통하여, 화자는 매일 여기저기

로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술만 있다면 그에게 좋지 않은 것이 없다. 게다가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과 좋은 안주를 놓고 좋은 술을 마시면서 좋게 놀고 있으니 좋지 않을 수 없다. 가히 취생몽사의 경지라고 하겠다. 애주가들에게 이런 경지에 드는 것보다 더 큰 욕망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파)도 작자 미상의 시조다. 화자는 청자에게 밤낮 없이 놀자고 조르는데, 이와 비슷한 시조들이 상당히 많고 민요에도 유사한 가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평생 실컷 놀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큰 욕망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놀려는 이유는 게으름이나 귀찮음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 아침 이슬처럼 금방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짧은 인생에 대한 아쉬움, 즉 비관적인 인생관이 노는 행위로 비화된 것이다. ‘논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노는 것인지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무려 여덟 차례나 논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놀고 싶은 욕망을 절실하게 표현하였다. 어떤 동물보다 유희와 쾌락을 추구하는 동무인 인간에게 어울리는 욕망인 셈이다.

4. 시조에 투영된 정신문화와 한국사회의 현상들

3장에서는 시조에서 욕망이 발현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시조의 범주를 나누는 틀을 만들고 그 범주에 속하는 시조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A)는 발전과 성취의 욕망이 몸과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것, (B)는 그 욕망이 밖으로 발산된 것, (C)는 현실에 만족하고 즐기려는 욕망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 (D)는 그 욕망이 밖으로 표출되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욕망의 움직임에 따라 나눈 이유는 그 틀이 시조를 전반적으로 구획 짓는 데도 유용하지만, 그 범주에 속하는 욕망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형·굴절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이제 그 각각의 욕망들 속에 투영된 정신문화와 그것이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²³⁾

(A)에 포함된 주된 욕망의 항목으로 거론한 것은 학문정진과 인격수양이었다. 이런 욕망은 그 자체로 조선조를 살던 선비들이 공유했던 문화라고 해도 무방하다. 과거를 통해 벼슬길로 나아가진 그렇지 않건 간에, 학문에 힘쓰고 인격을 수양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내팽개친 선비는 없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변했다. 보통사람들 가운데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삶의 진리를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었고, 늘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인격을 수양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거의 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 가운데 인격수양은 특히 많은 변화를 겪은 가치관이다. 이제는 인격수양을 남달리 강조하는 어른도 없고,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성이 인품이라고 믿는 사람도 없다. 오히려 인성이 좋고 유순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경향조차 나타나, ‘言顧行 行顧言’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된 것은 개인의 내면과 품성보다 재산이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가 그의 인격과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겸양의 미덕을 강조하던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대신하여 개인의 주체성과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강조하는 서구식의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

23) 욕망을 이야기하다가 문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쩌면 혼동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욕망이 개인적인 차원의 것에서 멈추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문화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해온 시조에 투영된 욕망은 해당 시조를 지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부름으로써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공유하게 된 욕망이다. 욕망의 내용이 바로 그 사회의 문화가 된 것이다.

다. 확실히 현대는 설령 거짓을 섞더라도 앞장서서 자기를 내세우고 과장되게 자기PR을 하는 것이 양보하고 체면을 차리는 것보다 사회생활에 유리한 세상이 되었다.

이처럼 인성의 중요성이 점점 간과되어가는 경향과는 정반대로, 지식 습득 위주의 학문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앞장에서 학문연마도 순수하게 자기만족적인 공부와 미래에 쓰기 위한 목적의식이 작용한 공부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의 표현법으로 전자를 ‘학구열’, 후자를 ‘교육열’이라 부를 수 있다. 학구열은 중년 이상의 연배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방송사의 교양강좌, 대학의 평생교육원, 백화점의 문화강좌, 시민인문강좌 등에서 취업과 상관없이 열심히 인문학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한다. 먹고사느라 쉽 없이 달려오다가 비로소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야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겼거나,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사회에 회의를 느껴 다시 인간성을 찾아보자는 반성이 작용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겠다. 반면에 교육열은 중년층들이 자기 성장을 위해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식들을 강제로 학원과 과외로 내모는 사교육이라는 일탈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입신양명의 꿈을 자식들에게 전이시킨 결과다. 물론 이미 입신양명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2세들에게 강요한 데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한 국가사회가 정상화되고 건강해지려면 교육열은 식어야 하고 학구열은 뜨거워져야 한다.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

(B)범주에 포함된 욕망의 주요 항목으로 든 것이 입신양명과 출장입상이었다. 그 가운데 출장입상이라는 욕망은, 현재는 조선조와 사회 형태가 전반적으로 달라졌으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라 비난 받는 교수들에게서 간혹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은 교수를 천직이라 여기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길 대신에 교수를 발판으로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큰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유력자에게 줄을 대고, ‘나아가면 장관이고 들어와서는 교수’로 살기를 고대한다. 조선조에야 출장입상의 길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해야 했기에 다른 방도가 없었겠지만, 오늘날에도 그 방법을 고관이 되는 길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무언의 공식인 ‘입신양명=관계진출’이 만들어낸 커다란 병폐다. 교수들이 학식과 권력, 즉 ‘識權兼備’를 추구하게 된 것은 대학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매우 안 좋은 현상이다.

조선조 유자들의 공통적인 욕망이었던 입신양명은 출세만능주의로 변질되었다. 오늘날 수많은 대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매달리는 것은 조선조의 모든 사대부들이 오로지 입신양명을 위해 과거시험 공부에 몰두하던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 오늘날에는 응시 자격에서 신분적인 제약마저 없어졌으니, 오늘날 사람들이 지닌 입신양명의 욕망은 오히려 조선조의 선비들의 그것보다 훨씬 확대되고 심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조선조 사람들이 품었던 입신양명이란 꿈에도 이미 출세만능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래도 겸양과 자중이라는 가치가 그 브레이크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현대는 인격수양이 경시되고 있으므로, 출세만능주의에 제동을 걸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 젊은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도 자녀가 고시를 거쳐 고관이 되기를 바라거나, 혹은 판검사와 의사 등 권력이나 금력을 가진 사람들과 혼맥을 맺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조선조적인 욕망인 입신양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위에서 지적한 지나친 교육열은 바로 이런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 과열된 것일 뿐이다. 이는 3장에서 인용한 시조 다)가 (B)범주의 욕망에 속하는 입신양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과

비슷하다. 다만 다른 것은, 과거에는 무조건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때가 이르기를 기다렸고 기회가 찾아왔더라도 출처간에 고민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뒤에는 곧바로 고민 없이 세상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 나간다는 점이다.

(C)범주에 속하는 욕망의 대표적인 것으로 든 것이 몰아일치와 안빈낙도였다. 그 가운데 안빈낙도라는 것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전근대적인(?)’ 생각이고, 도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다.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위력을 지니게 되었고 또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을 위해 후안무치한 짓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으니, 안빈낙도라는 말은 이제 사전에나 존재하고 교과서에서나 배울 수 있는 말이 되었다. 다만 몰아일치와 자연합일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어 대조적이다. 경치가 좋은 강변이나 계곡에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짓고 머무는 사람들이나 귀농·귀어·귀촌으로 불리는 귀향인들에게서이다. 특히 완전히 귀향한 경우는 끊임없이 경쟁하며 앞만 보고 질주하는 삶에 지친 사람들이 선택한 인간다운 삶의 방식인데, 이것은 과거에 벼슬길에 나서서 양명을 추구하다가 늘그막에 자연으로 돌아와 안식을 취하던 사람들이 가졌던 가치관과 유사하다. 일방적으로 떠나던 시대에서 이제 돌아오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왜곡되었던 가치관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변화상이라고 하겠다.

(D)범주에 속하는 욕망의 대표적인 것으로 든 것이 성욕의 분출, 그리고 음주와 놀이였다. 아마 3장에서 든 욕망들 가운데 오늘날에 가장 넓은 범위로 팽창된 욕망이 바로 이것들일 것이다. 전국 어디에나 들어서서 불을 밝힌 모텔과 유흥주점, 그리고 사행성 놀이터는 이 욕망이 얼마나 왜곡된 채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오늘날이라고 옛날보다 사

람들의 성적 욕망이 갑자기 더 커졌을 리는 없을 텐데, 전국 모든 곳이 거대한 환락의 불아성을 이룰 정도로 성적 욕망은 과도하게 팽창하였다. 그래도 옛날에는 이러한 음주와 유흥에 낭만과 품격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오로지 말초적 욕망만이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부유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교육열과 성적 쾌락의 추구라는 정반대에 위치한 두 욕망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사회는 모든 면에서 열기를 많이 식혀야 한다.

5.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나는 문화란 무엇이며, 한국문화의 정체성은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친다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해왔다. 그리고 시조를 선택하여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범주화를 시도해보고, 거기에 투영된 문화적 현상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형·굴절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시조야말로 그런 점들을 이야기하기에 제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시조를 가지고 시도한 방식이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여기에서는 비록 시조 전체의 범주를 간략한 방식으로 구획하여 설명했지만, 그것이 실제교육에서 간단하게 적용할 만큼 단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조를 여러 편 가르치면서 문화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한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교육을 위해 배정된 시간 자체가 문학작품을 적절히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일상적 대화가 충분히 가능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언어를 먼저 가르친 다음에 저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반드시 한 시간에, 혹은 한 편에서 문화의 한 항목을 다’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내가 기왕에 한국문화교육에 대하여 쓰인 논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글을 쓰게 된 것은 수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의구심 때문이다. 학생들은 한국어연수과정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물어도 답을 않으니 그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이 그야말로 한국어를 말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의심했었고,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가르쳐야만 한국인과 의사소통도 되고 수업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서이지 단지 한국어를 잘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한국문화를 아는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수단적 지식일 뿐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주객이 전도되어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은 아주 부수적인 것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의 성격을 더하여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물론 나의 이런 문제의식이 직접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에 참여해보지 않았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제3자가 더 진단을 잘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진단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바꾸어가거나, 한국어연수 시간을 늘리더라도 문화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장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들까지 언급한 것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칠 때 반드시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내용에 한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혹자는 어차피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하려고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이니만큼,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전통문화 위주로 가르치는 것이 낫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굳이 자랑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자괴감의 산물이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배운 내용은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늘 목도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외국인들이 당장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와 현상의 유래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더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살아 있는 한국문화교육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나를 솔직히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도 투명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홍규 외, 『고시조 대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中庸』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1999.

韓愈, 『原道』

강현화,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최신 동향 및 전망』, 『국어국문학』 155집, 국어국문학회, 2010, 39~78쪽.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의 방향』, 『어문론총』 45집, 한국문학언어학회, 398~400쪽.

배재원,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1, 1~177쪽.

이선이, 『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 14집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153~171쪽.

최정순,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까지 문화 간의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제안하며』, 『한국고전연구』, 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6~29쪽.

최정순·윤지원, 『한국어교육 연구동향 분석』, 『인문연구』 63집,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53~90쪽.

최현주, 『신소설에 나타난 신생 개념으로서의 ‘사회’와 가족주의의 견고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집(9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129~155쪽.

황우철, 『시조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중급 이상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계명대 석사논문, 2009, 1~82쪽.

황인교, 『문학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문화사, 2006, 291~294쪽.

ABSTRACT

Education of the Korean culture to foreigners, its substance and method

Cho, Yong-ho

This study is about what things we must teach foreigners in terms of Korean culture. First of all in this study, I explained a concept of culture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Then I categorized the culture into three types: material culture, life culture, spiritual culture. I focused on the spiritual culture and suggested some teaching methods using Sijo(Korean traditional poetry). Sijo is a literary genre that has contained Korean spiritual culture in diverse way. So I think Sijo is the most appropriate text for educating the spiritual culture by literature.

For proceeding on the main issue, I divided human desire into two categories: the desire for ascending or descending and the desire for internalizing or externalizing. Then I established four sub-categories from them: 1) desire for internalizing and ascending, 2) desire for externalizing and ascending 3) desire for internalizing and descending, 4) desire for externalizing and descending. Each of these four categories involved particular phenomenon of the spiritual culture. The phenomenon in first category were a devoting to study and a cultivating the mind. In second, there were a rising in the world and gaining fame and a being general in war and serving prime minister in royal court. In third, there were a being one with the natural world and a being content amid poverty and taking pleasure in acting in an honest way. In fourth, there were a satisfying sexual desire and an enjoying drinking and amusements. I explicated these four categories by Sijo being proper in each category.

The main points of spiritual culture in four sub-categories are still in Korean life and mentality.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same meaning and value with premodern's, they are still in existence today. I especially empathized it in this study. When we educate foreigners Korean spiritual

culture, we must not show them dead culture in the past but continuing culture in the present. I think, it would be that teachers educating Korean culture must do.

Key Words education of Korean culture, spiritual culture, categories of desire, Sijo.

논문투고일 : 2014. 5. 12

심사완료일 : 2014. 5. 29

게재확정일 : 2014. 6. 2